

## 전통사상과 환경교육

안 기 희

(국제환경포럼중앙회 대표)

### I. 전통사상과 환경문제

전통사상과 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전통적 서구문명의 사상이 우리의 의식구조 내지 정치·사회·경제·교육·문화 등 인류의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한 역사적 근원이 되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환경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전통사회나 문화권이든 간에 환경계에 관한 인간의 지적인 태도와 가치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적인 태도와 가치관은 그 나라의 전통문화와 고유사상의 맥락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며, 특히 사상적 관점에서 자연과 환경문제를 이해되어지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동식물 기타 자연에 비하여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물론 우월하다는 개념이 종래의 정치철학이나 교육철학을 지배하여 왔고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과학적이기 보다 정치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도 인간 우월주의의 표출에 불과하다. 이들의 관계는 지적 행위다기 보다는 지배적 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 분명하다. 인간과 짐승의 이원주의론은 정치가 경제와 환경의 개념을 포괄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비교정치학의 효시라 할 수 있다.<sup>1)</sup> 1)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배경의 근본사상은 환경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정치나 교육철학은 동식물과 非생물을 비정치적(The Non-Political)으로 규

1) John Rodman, The Politics of Nature, Western Association Annual Meeting San Diego Calif : April, 1973, P.10

정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은 인간에게 국한하여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왔다.

여기에는 기독교가 자연을 인간의 피조물로 보는 '인간중심적인', '자연관'을 받아들였고 이와 같은 환경관이 자연정복사상이라는 기초위에서 서구사회의 산업문명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러한 사상은 자연환경을 인간지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리하여 오늘날 산업문명의 한계와 지구환경위기를 초래한 근원이 되었다.

이에 비하여 전통적인 동양철학사상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동양의 노장사상이나 공·맹자 등의 유가사상은 인간과 자연을 일체로 보는 생명중심의 인간과 자연의 일체사상을 견지해 오므로서 그만큼 산업문명의 위기를 늦게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환경문제는 산업문명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서 새로운 생명 패러다임 우선의 환경관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전환기에 서있는 느낌이다. 새로운 文明 패러다임의 전환은 새로운 환경가치관과 지식 문제가 우선되어야 함으로 환경 교육문제는 21세기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는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존의 제도나 틀로서는 그 사회의 병폐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를 위기라고 진단해 왔고 이러한 전환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장전, 헌장, 선언을 선포해 왔다. 권리장전, 인권선언, 환경선언, 자연보호헌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1972년의 UN인간환경선언 1982년의 UN 세계자연헌장, 1992년 UN 리우환경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개발선언 등은 모두 21세기 지구환경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특히 1992년 리우정상회담이 만들어낸 Agend 21의 36장 교육, 일반대중의 인식과 훈련의 증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1975년 벨그라드헌장, 1997 UNESCO와 UNEP에 의해서 개발된 티빌리시환경교육에 관한 회의의 선언과 권고아래 신생태문명의 환경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부합 새로운 생태패러다임의 환경 교육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통사상과 교육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산업문명의 한계와 위기를 살펴봄으로서 지구환경위기의 근원의 단초를 진단한 후 다음으로 동서양사상과 환경철학, 환경제도, 환경정책, 환경법 등의 관련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새로운 신문명의 패러다임을 모색 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전통사상에 내재하는 환경사상을 기초로 21세기 생태문명의 패러다임을 향한 신환경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산업문명의 한계와 위기

### 1. 문명사적입장에서 본 환경관

#### 1) 그리스, 로마의 환경관(자연관)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에 대한 기본태도로 자연이 인간에게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주는 원천으로 생각하고 향유하였다. 그들이 형성한 철학 역시 ‘자연철학’이다.

자연은 그리스어로 피시스(Physis)인데 이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힘”이고, 사물의 총체 또는 존재의 전체를 의미한다. 즉 질서정연한 조화있는 세계를 뜻하는 코스모스(Cosmos)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자연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을 物活的(hylozoism, animistic)인 것, 즉 생명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유기적이고 합목적인 살아온 자연으로 보았고, 자연과 인간과 신이 연속될 하나의 전체로서의 자연이라고 주장했다.

초기 로마인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그리스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자연에 깃들여 있는 영성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의식은 있었으나 자연의 숭배사상은 의례적인 의미뿐이었다. 이들은 그리스인들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받아들여 공리주의적, 실용주의적 태도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변화(가공)해 보려는 성향이 로마문명 곳곳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자연을 인간의 이익과 편리를 위하여 이용가능한 자원의 창고를 보았다. 오늘날 서구인들이나 자연환경을 변화시키며 과도한 개발을 주도한사람들은 아마 로마인들의 실리추구적인 실용주의적 태도까지 그 근원을 소급해 볼 수 있다.

#### 2) 중세의 환경관(자연관)

서양의 중세는 A.D 5세기 로마제국이 망한때부터 기독교문화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운동으로 상당히 쇠퇴하는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을 말할 수 있다. 중세의 사상은 그리스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세의 환경관을 밝힌다는 것은 그리스의 이성중심의 합리적 사고와 기독교의 자연관을 살펴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중세 기독교의 자연관은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의 자연관은 한마디로 '피조물로서의 자연'이라 할 수 있다.

피조물이란 신에 의한 창조를 의미한다(창 1:1) 좀더 광의로 보면 '무로 부터의 창조'는 지속적인 창조행위이며, 즉 현재도 미래도 자연은 신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와 동양의 자연관인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연속된 범신론, 범자연론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자연과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연보다 우위에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성'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다(창 1:26-28).

이로 인하여 인간은 그 자신을 자연과 동일화시키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연에 대하여 주인과 지배자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자연관은 신과 인간과 자연은 그 계층적 질서에서 목적론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을 통해 신에게 향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 위치로 인하여 자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훗날 중세 서구사상은 신중심안의 인간 중심이라는 사상에서 신중심이 누락되고 인간의 자연지배하는 거만과 오만으로 단순한 인간중심주의로 빠지면서 자연환경관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으로 파괴된 단초가 되었다.

### 3) 근대의 환경관(자연관)

르네상스(Renaissance)는 근세의 시작을 의미한다. 인간과 자연의 재발견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새로운 인간관과 자연관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탄생'이라 할 수 있다.

데카르트(Descartes)는 짐승은 비합리적이고 감각이 없는 시계와 같은 기계로 본 반면에 흄(Hume)은 짐승도 사람과 미움, 동정을 느낄 뿐 아니라 생각과 이성의 능력을 지닌다고 보았다.<sup>2)</sup>

몽테뉴(Montaigne)는 동물이 인간보다 신에 가깝다면서 동물의 영혼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왔다.<sup>3)</sup>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과 짐승이 평등하거나 짐승이 인간보다 우세하다는 사상이 정치철학사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Rene Descartes, Discourse on Method(1873)

3) Montaigne, Essays, Apology for Raymond Sebon( c.1575-80)

인간과 동물의 상호간 평등사상은 아시지의 성프라치스꼬를 제외하고는 중세의 기독교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후 르네상스 시대의 몽테뉴, 계몽시대의 Hume, Rousseau에 이어서 Dawin, Kropotkin, 현대의 Lilly, Codwell등에 의하여 인간과 동물의 평등사상이 주창되었다.

이러한 사상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자연관은 서양과학 혁명에 의해 자연과학이 일어나서 극복되고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왜 유기체적 자연관이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이행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자연에 대한 객관적 태도가 확립되어 자연을 생명이 없는 물질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유기체적인 자연관이 사라지고 기계론적인 기술중심주의가 출현하였다. 그와 함께 자연과학도 발달되어 기계론적 자연관이 성립되고 자연의 수학적, 실험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수반되게 되었다.

이에 공헌자들은 갈릴레오, 뉴턴, 데카르트 등이다. 그 중에서 데카르트(1596~1650)는 인간과 자연의 이원주의와 철저한 기계론을 주장하였고, 뉴턴(1642~1727)은 과학의 세계를 확립한 공헌을 세웠다.

17세기의 기계론적 자연관이 확립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온 세계로 파급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앞다투어 새로운 기술발전을 일으켰고 19세기말에 이르자 후진국 독일이 화학공업을 발전시켰다. 신생국 미국은 막대한 자원을 배경으로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영국과 프랑스를 압도하면서 20세기의 산업문명을 주도해 왔다. 과학기술은 20세기에 들어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발전을 기록했다.

산업혁명의 특징은 ①생산의 거대화 ②가내공업에서 공장공업으로 ③인구의 급격한 증가 ④새로운 기술의 응용이다. 산업혁명을 통하여 과거의 에너지 원인인 나무와 석탄과 철로 대체되었고 산업화, 도시화는 대규모적인 공장과 주택의 집합화로 진행되면서 환경파괴와 각종오염 등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 2. 산업문명의 한계

### 1) 인간중심주의, 과학기술주의의 환경

산업문명의 가치체계를 형성한 것은 중세와 르네상스, 계몽기를 거치면서 자연에 대한 범신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16~17세기에 이르러 갈릴레오, 뉴턴, 데카르트 등

의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발전하면서 이루어 졌다.

당시 이성과 감성이 분리되는 이원론적 사고와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는 기계론적 사고가 동시에 확립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성제일주의에 입각한 과학기술주의와 인간중심의 세계관이 산업문명위기의 모든 징후는 산업문명을 낳은 서구적 '근래성'의 후유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위기론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미 우주공간을 확보하는 우주기술과 지구생태계를 전멸할 수 있는 핵발전과 핵무기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속의 가상사회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산업문명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증후군은 자연자원의 고갈,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생태계교란, 기상이변 등이다.

또한 도구적 이성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중심적 세계관'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월적 지배위에서 자연을 끊임없이 혹사하고 자연을 이용하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시켜온 문명으로 전개하여 왔다.

인간중심적 문명관은 인간이외의 존재들은 인간에게 이익의 자원에서만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때의 가치는 거의 전적으로 인간의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용의 가치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이외의 자연물은 "물질" 내지 "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인정받을 뿐이다. 여기에는 획일주의와 획일주의가 파생한 개발독재와 자연파괴로 인한 인간의 자유박탈만 존재할 뿐이다.

## 2) 욕구경쟁주의와 무한 성장주의

산업혁명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문명이다. 이는 모두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당연시하는 이념적, 사회적, 패러다임이라할 수 있다.

국가 산업화정책은 자원무한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자원무한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산업문명은 가용자원의 한계가 있다는 유한성에 의해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즉 이 한계와 위기는 '자연자원 매장량의 유한성', '외적 교란에 대한 생태적 수용능력의 한계성' 그리고 생태적 파괴에 대한 '비가역성'을 말한다.

지구자체가 제한된 수용능력(인구폭발)과 생산능력(자연자원의 감소) 그리고 흡수능력(공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성장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인간 중심적 성장지배철학에 기초한 산업문명의 근본적인 가치철학의 자아성찰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산성의 개념도 경제적 능률과 도구적 가치 및 시장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사회 생태적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 3) 자유 개인주의, 개방주의적 사고

금세기 들어와서 확립된 사회적 규범이야 교육적 지식은 일방적으로 개방사회는 좋은 것이며 폐쇄사회는 나쁜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sup>4)</sup>

그리고 초자아적인 개인주의 관념은 모든 사회시스템에도 구조화되어 자유주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 중심으로 국가가 발달되어 왔으며, 국제질서 또한 자국중심의 팽창주의 지향해 왔다. 자유 개인주의는 무한생산 소비 확장주의와 무한 경쟁시스템을 창출하면서 이로부터 환경문제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개방에는 선진 기술, 자본과 함께 환경문제도 함께 이전된다. 거대한 기술산업 국가(The Technological Leviathan)을 이룩한 반면에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감소, 인구 증가, 환경문제 등으로 생태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렇다고 산업화이전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가난과 결핍의 시대에 형성된 교육과 제도는 물질적 산출이 풍요한 현대에는 이미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의 전환기에 있다. 개방사회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등으로 그 세기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첫째, 개방의 자체가 모호하고 교육적으로 적립되어 있지 못하다.

원시사회는 현대사회보다 양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폐쇄적이었던 반면에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개방적이었다.

중세는 현대사회보다 개인의 창의적 활동측면서 보면 폐쇄적이었으나 현대보다 의식적인 경험 측면에서 보면 훨씬 폐쇄적이었다.

둘째, 개방의 한계성에 관한 문제이다.

개방사회는 고도의 사회구조, 기능의 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전문분야에 따라 그 경계가 심화된다. 그러나 인구, 도시, 환경문제 등 생태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의미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개방체계의 교육은 직선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한 생존권 도는 생태계를 관리하는데 부적절한 교육으로 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방체계가 좋다고 하는 가정은 1972년 로마 클럽이 '성장의 한계론'을 주장하면서 경험적인 검증은 제시함으로써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환경론자들은 종래의 사회계약 대신 생태적계약론(Ecological Contracts Theory)으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4) Karl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 Rourledge and Kegan Paul, 1945

### Ⅲ. 동·서양의 생태사상

오늘날 산업문명의 증후군(환경문제)이 전지구적 규모로까지 확대일로에 있는 포괄적인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에 관한 인간의 지적인 태도와 가치관의 중심인 사상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의 지적태도와 가치관은 그 나라의 전통문화와 고유사상의 맥락에서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환경문제와 기독교사상, 불교사상, 노장사상, 유가사상, 우리 나라의 생태사상으로 나누어 접근해 보기로 한다.

#### 1. 기독교와 생태사상

오늘날 서구산업의 대부분은 기독교 사상에 영향 입은 바 크다. 그리고 서양사상의 중심이 기독교 사상의 중심의 역사속에만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양사상의 환경관은 성서 중심적 배경에서 태동되었고 실제로 그 동안 기독교의 사고방식 체계가 인간이 자연을 다루는 태도에 직·간접의 영향을 많이 끼쳐왔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서구사회가 직면한 환경위기상황에 대하여 기독교 사상이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기독교 사상의 사상적 오류가 생태계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하며, 이 같은 관점은 학자들간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살려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이 같은 사상적 오류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작되었는가? 둘째, 학자들간의 논쟁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 1) 인간중심적 자연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인간중심적 자연관'을 받아들였고 이 같은 자연관이 서구사회의 영향을 미쳐 결국자연을 인간지배로 대상화하였고 이리하여 오늘날 지구환경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의식구조는 리사이클 경제가 아닌 모자이크 식으로 옮겨온 이민모델(migratory model)로 출발하였다.

생태학자 린화이트(Lynn White : Tr)는 인류의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근거를 인간이 우주지배의 중심이라는 중세의 유대기독교 자연관(Judeo-Christian Teleology)에



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중세의 기독교 철학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닌 자연의 주인이며, 인간·자연의 이원주의에 입각하고 있고 이러한 인간중심의 철학이 인간의 개척정신을 진작시키고 기술과 과학의 진보에 따른 물질문명의 발달을 가져왔고, 자유방임적인 민주개방적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자연환경의 파괴 및 고갈과 환경오염 등 생태학적 위기의 근원이 되었다.<sup>5)</sup>

그는 기독교만큼 인간 중심적인 종교는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창조신학의 기본 테스트라 할 수 있는 창세기 1:26-28은 자연은 인간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지배의 대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sup>6)</sup>

또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며 모든 피조물 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말한다.

## 2) 성서에 나타난 자연관

성서는 자연계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로 인식하고 있지만 인간은 자연계의 사용권을 가진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따라 자연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권리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의 창조신앙은 창세기 1장 26-28절의 내용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의 해석이다.

여기에 대해 다스리다를 ‘돌보며’로, ‘정복’을 자연의 착취와 파괴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으나 결국 인간은 자연에 대한 파괴로 가는 길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남기고 말았다.

보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창조신학의 ‘인간중심의 자연관’이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 경험주의 철학과 근대 서구의 제국주의적 지배이데올로기와 결탁하여 오늘날 환경문제의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데에 있어 전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중심적(anthrocentric)철학은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 전세계사회체제를 지배하였고, 거의 모든 정치, 경제의 사상적 근간을 이루었으며 모든 제도적 준거가 되었다.

기독교 사상 전부가 인간중심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12세기의 아시지의 성 프란치

5) Lynn White, Jr. (1967)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vol.15, pp.1203-03

6) 김명용(1990), 창조의 보전과 새로운 창조신학, 「장신논단」, 제6집(장로신학대학교, p,295)

스꼬는 이간도 동물과 무생물과 함께 하느님의 피조물로 보면서 태양, 달, 물, 불, 바람 등 불이건, 땅이건, 죽음이건, 생명이건 모두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우주의 모든 것이 짝지어져서 서로 화해된 상태라고 설파했다.

이에 대해 생태학의 전문가인 Lynn White 교수는 성프란치스꼬는 그리스도 이후로 크리스찬 역사안에서 가장 위대한 진보주의자로 칭송했다. 나아가 서방역사안에 가장 위대한 영적인 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즉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인 기독교의 비전이였다. 그는 인간이 창조물에 대해서 지배하려는 사고방식 대신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동등하다는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만물은 더 이상 지배되거나 소유되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성프란치스꼬는 자연보의 후보성인이 되었다.

## 2. 불교와 생태사상

불교교리에서 환경문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상은 '緣起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 이사상의 실체는 사물간의 인과관계로 모두 상호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기사상과 더불어 3품 사성제사상, '業'사상 등은 생태문제를 이해하는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모두가 생명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 연기사상은 존재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존재는 다른 존재와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 교리를 인간과 환경관계에 대입해 보면 '이것(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것(자연)이 존재해야하고, 이것(자연)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것(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기적 시각은 첫째, '상호의존적 생성' 또는 '생태적 먹이사슬'을 지니며 동시에 고정상태로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이다.(諸行無常)

연기적 세계관은 생물과 무생물 이간과 자연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에 통하는 보편적 논리이다.

연기법 시각에서 보면 첫째, 환경문제는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발생된 것이다. 17세기 이후 이성주의에 입각한 과학만능주의/인간중심주의/기계론적 자연관은 유기체적인 연기적 세계관을 부정하는데서 자연환경의 파괴와 고갈을 맞게 된 것이다.

둘째, ‘모든 존재는 4대(地, 水, 火, 風)의 연기적 관계성 안에서 창조되고 유지되어야 하는데 기계론적 세계관은 제국주의적 정치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성장과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4대(대기, 수질, 토양)를 오염시킴으로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셋째, 불교의 자비심은 인간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이타적인 것이다. ‘섬기고 따르는 마음’ 함께 기뻐해 주고 슬퍼해 주는 마음(자비심)을 일으켜 그 방편으로 일체의 중생을 구한다고 설하고 있다. ‘중생세간이 아프므로 내가 아프다’는 것은 못생명의 병이 다나야 내가 낫는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범구비유경”에서는 사람들은 인연이 맞아 오는 것을 ‘내것’으로 착각하고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또한 3품 사성제사상에서는 우주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꿈’로 가득차 있어 괴롭다는 것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열반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 剎那滅(Ksanauada)을 무한적으로 소유하려는<sup>7)</sup> 데에서 모든 괴로움과 불행이 싹튼다는 것을 망각하고 산다.

또한 괴로움은 重重無盡緣起<sup>8)</sup> 속에서 존재된다는 생태계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諸法無我). 즉 인간은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소유를 더 많이 독점. 확대함으로써 만족을 느끼고 인간이든 자연이든 타 존재를 더 많이 지배, 정복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이러한 소유와 지배의 무한대를 통하여 최대행복이 보장되리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소유와 지배의 확대는 연기사상을 부정파괴하는 것으로서 곧 바로 우리인간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야기시킨다.

오늘날 우리들은 온갖 소유의 탐욕 때문에 苦海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인류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존재해온 것이다.

또한 ‘業’이란 인간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자기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自業自得이란 것이다. 오늘날 지구환경 위기는 인간들의 탐욕에의 자연을 마구 난도질 해 온 ‘惡業’의 산물이다.

지금의 ‘惡業’은 미래의 인간이 받아야 하는 ‘業報’로 연결될 것이다. 인과응보의 법칙이기도 하다.

7)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 물질의 혼란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보다는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8)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중중첩첩이 연관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환경문제의 본질은 인간이 지나친 탐욕으로부터, 자연에 대한 무한정 지배, 착취로 생긴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절제, 정신적 수양을 통한 자비, 근본은 바라보는 생태적 각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노장과 생태사상

한마디로 노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생명사상은 오늘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생태적 인식의 중심사상이 될 수 있다. 노장사상은 당시의 인간과 자연관계에서 형성된 '문명의 틀' 내에서 노장이 인식한 '인위적 문명'의 한계성을 경계한 자연사상을 오늘의 산업문명 안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생태위기의 심각성과 인류발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그 위기 극복의 지혜로 얻고자 하는데 있다.

노자사상의 근본은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인간, 인간과 자연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인간본성의 질박성이 깨어졌다고 보았다.

결국 인간은 하늘, 길, 天道, 즉 '자연의 길'을 포기하고 지나친 '인위의 길'을 추구하는데서 인간의 삶이 황폐화되고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자 또한 자연은 원래 '평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자연계에 인간의 지모와 욕망이 등장함으로써 자연은 파괴, 고갈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환경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는 이러한 관점도 있겠지만 老壯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과도한 '人爲의 문명'이 그 발단의 그원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질박성이 깨어지면서부터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老壯은 당시 反문명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무위자연의 섭리에 의한 질박한 인간본성에 따른 삶의 철학을 주장하였다.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의 본질은 노장이 활동하던 시대와 현대산업문명의 시대나 그 형편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완적인 인간 중심적 신념과 기계론적 세계관의 과신에 있다고 본다.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동양의 노장사상의 직관적 지혜가 새삼 필요함을 주목하고, 노장의 자연관을 논거로 환경문제해결과 결부시켜 보기로 한다.

노장의 자연사상을 환경문제와 결부시켜보는 것은 ‘생명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기계론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생명은 기계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데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기계론적이거나 환원론적인 사고의 대상이 아니다.

생명은 언제나 존재할 뿐 동일 또는 고정불변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장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기계론적 사고는 ‘살아있는 사고’가 아니라 ‘죽은 사고’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가 안고 있는 철학적 과제는 죽은 사고로부터 살아있는 사고들의 전환이다.

환경은 모든 존재자의 존재조건이다.

즉 ‘우주론적 生命’이라고 볼 수 있다.<sup>9)</sup>

노자의 無爲自然論은 자연의 본질을 무위로 보았다. 무위란? 인간이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인위적 행위를 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간의 교만으로 현대 산업문명을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는 ‘爲’를 자행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간 삶의 황폐화를 자초하였다. 이의 回生을 위해서 자연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老壯의 無爲自然, 즉 順自然, 法自然의 삶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장사상은 ‘人間과 自然의 調和’를 추구하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天人 合一’사상이라고도 하며 생태적 사고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생명을 중시하는 노장사상은 자연의 본질을 ‘無爲自然의 道’로 보고 ‘道’를 함에 있어서 自然, 天, 地, 人의 질서법칙을 중시하며 인간을 대자연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각자의 존재의 의미에서 合一을 주장했다. 노장의 철학의 ‘무위자연은 자연주의와 인간문명사이에 조화와 균형에 대한 中庸의 태도’라고 집약되어 질 수 있다.

#### 4. 유가와 생태사상

여기서는 유가철학사상이 오늘 생태 위기 극복의 본질적 접근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유가사상에 나타난 생태적 윤리를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오늘날 환경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산업문명을 옹호하는 과학만능주의, 기계론적으로 보는 환원론적 세계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월주의에서 연유되었다고

9) 宋恒龍(1997), 老壯의 自然觀(환경과 종교), 공저 (서울 : 민음사 P.153)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오로지 투쟁과 경쟁, 파괴와 차별을 낳은 갈등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상에서 생명을 우선하는 환경으로서의 우주, 천지와 인간이 어떤 관계로 화해<sup>10)</sup>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유가의 “仁”은 만물을 널리 사랑하는 도덕적 정감으로 파악하고 있다. 맹자의 ‘親親而不二民 仁民而愛物’의 사상은 자연만물에 대한 사랑과 금수에 대해서도 죽어가는 모습과 애끓는 소리를 듣고는 생명의 존귀함과 존재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 외에도 무릇 생명이 있는 동식물이나 非생물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천지우주의 ‘共生’의 부르짖음이다.

둘째, 유가사상에 내재하고 있는 유기체사상이 환경문제를 극복하는데 주요한 사상적 자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중용의 ‘致中和’사상은 인간과 만물을 한 몸통으로서의 유기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만물의 각 개체들은 상호유기성을 갖고 존재한다.

셋째, 오늘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자원무한, 무한성장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화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방법’에서 맹자는 왕도의 시초로 자원보호의 전체하에서 사려깊은 개발로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화가능한 절용정신’으로 공자의 ‘禮’는 사치한 것보다는 오히려 검소한 것이 좋다는 표현대로 과욕과 수분, 절용과 애물의 정신은 유가철학의 기본사상이다.

## 5. 우리나라의 생태사상

우리의 전통사상에서 생태에 관한 사유를 살펴보면 고조선시대부터 자연숭배사상이 지배적이었으며 고려중기인 12세기말부터 조선후기 18세기까지 당대의사상가들의 뛰어난 자연 철학의 사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의 중심사상은 사람 아닌 다른 짐승이나 벌레처럼 하잘 것 없는 동물 또는 식물과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 이러한 동물과 식물에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에 대한 깊은 사유를 보여 주고 있다.

조선 후기실학자 홍대용은 “의신문답”중에서 ‘생물에 세 가지가 있거늘 인간, 금수, 초목이다.’ 이 셋에 귀천의 등급이 있느냐고 ‘실용’이 ‘허자’에게 묻자 허자가 답하기를

10) 여기서 ‘和解’란 말은 ‘함께감’, ‘함께 흘러감’의 뜻으로 영어로 Great Hamony라 표현할 수 있다. 박신환(1996) “用易에서의 自然觀”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p.254

“천지간 생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귀하고 금수한테는 지혜가 없고, 초목한테는 감각이 없고 이들에게는 예의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실용이 “오륜(五倫)오사(五事)가 인간의 예라면 무리지어 다니면서 먹이를 먹는 것은 금수의 예이이고, 군락을 지어 가지를 뺏는 건 초목의 예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귀하고 물이 천하지만 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이 귀하고 인간이 천하다.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물은 균등하다”라고 함으로써 홍대용은 ‘사람과 물이 다를 게 없다’는 ‘인간 물의 균등론’ 즉일원론을 주창했다. 실학자 홍대용이 사회와 민족을 보는 새로운 눈을 ‘인물균’이라는 생태학적관점에서 인간과 다른 생물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한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그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중국과 오랑캐사이에도 차별을 뛰어넘어 개별적 존재와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박지원은 주객합일의 경지 ‘眞心’사상으로 생명과 사물에 껴한 깊은 통찰, 사람살이 방식이라든가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생태주이적 성찰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규보는 만물이 근원에서 하나라는 만물일류(萬物一類)사상을 주장했고, 서경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자연철학적 성찰을 강조했다. 그리고 신희은 학문이 단순히 지식 추구여서는 안되며 생과 세계에 대한 정신적 깨달음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사유 등은 모두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생태주의 사상들의 면모로서 새로운 생태교육 패러다임의 대안을 삼을 만한 사례로서 높이 평가할만한 사상들이다.

#### IV. 신문명의 전환, 생명중심의 환경교육방향

앞에서 동서양에 내재하는 생태사상을 고찰해 본 결과 이제 인류는 중대한 전환기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 되었다.

산업문명의 폐해를 안고 계속 지구환경위기로 치달느냐? 아니면 새로운 생태 패러다임으로 급전환하여 지구를 구하느냐는 중대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인류는 이제 이 같은 공동책임을 안고 양세기의 가교에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역사적 주체자로서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하나하나 차근히 시작해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

## 1. 생태중심주의로 전환

지금까지 능률극대화 추구해온 산업문명을 옹호해온 인간의 사상 철학, 윤리,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Value Praradigm Shift)을 요구받고 있다.

환경자원문제와 관련인류문명의 발달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sup>11)</sup>

제1기는 인류등장으로부터 16-17세기의 환경혁명까지의 '자연우위의 시기'라 하겠다.

제2기는 산업혁명으로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인간우위의 시기라 하겠다.

제3기는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시로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기'이다.

환경과 자원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사상이 필요에 따라 변해 왔으며, 이에 대한 환경과 자연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규제도 시대에 따라 자연히 변천해 온 것이라면 제4기는 21세기 이후의 분명 '생명우위의 시기'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과신하는 과학만능주의의 신념, 실체를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 보는 존재론, 물질을 기계론적으로 보는 환원적 세계관, 현상을 직선적이고, 원자적이고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의 전환을 의미한다.

산업문명의 가치체계의 바탕이 된 이들 신념은 결국 자연에 대한 인간 우월 중심적인 인간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21세기가 창조해야 할 새로운 문명은 이성과 감성(직관)이 공존할 수 있는 유기체적, 전일적, 일원적, 역동적인 현장 '生命'을 지향하는 생태중심의 세계관의 전개를 의미한다.

여기의 생태중심의 세계관은 생태문명의 창조를 의미한다.

생태문명의 창조는 기존의 일차원적인 환경보호의 차원을 넘어 '우주생명공동체 삶'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생태문명을 지향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과학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태도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고도의 과학기술문명이 오늘날 인류의 위기를 몰고 온게 틀림없다.

유전공학, 생명공학, 핵공학 등으로 과학발전에 대한 문명의 불확실성 '위험사회'마저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 '위험'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

21세기에 와서 이제 우리는 다시 전통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그러나 21세기 인류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더 고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

11) 유동운, 강세훈(1992), 「자원경제학」, 서울 : 법문사. pp.16-18



과학, 철학과 과학기술 사회학의 정립이 필요하고, 생태효율이 높은 자원순환형 경제 사회체계를 건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무한성장주의에 대한 반성

앞에서 지적했듯이 산업문명의 위기가 욕구 경쟁적 자원무한주의를 토대로 무한성장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인간의 행복지수도 물질의 소유지배와 구매확대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과 편리함으로 연결된다. 이는 곧 확대생산을 부추기고 자원의 고갈과 생태계 파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인류가 선택해야 할 방법은 욕구의 축소를 통한 행복의 추구인 것이다. 즉 절제 되어 할 욕구는 물질적 욕구이며, 확대되어야 할 것은 정신적 욕구인 것이다.

산업문명위근 분명 인간의 행위능력(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가치능력(정신능력)으로 인해 온 것이다.

만약 인류가 지속적으로 자원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욕구확대를 위한 성장지배 철학을 갖고 무한성장을 추구한다면 지금의 물질향유와 편리함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의 어떤 보상도 기대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는 최소한 현재의 물질 생산과 경제발전의 경쟁속도를 적어도 현재의 수준에서 조절하고, 지금까지의 직선적이고 획일적인 발전체계를 생태효율성에 따른 순환반복의 과정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자기 탐욕과 의지를 억제 조절하고, 천지만물의 生成利殖을 최대 최고화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어진 유한을 극복하는 것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지’가 인류문명위기의 근원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각해야 한다.

## 3. 자유개인주의에 대한 성찰

근대산업문명 태동의 뿌리가 된 인간의 ‘개념’을 서구의 고립된 개체의 절대주의에서 상황적 합리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시간이 결여된 수학적 합리성이 아니라 생성적, 역동적, 도덕적 합리성으로 바꾸

어야 한다.

서구근대성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데카르트는 실체(substance)를 자기존재를 위해 타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원인자로 규정하고 心과 身을 인간 존재내에 기원적 실체로 분리 시켰다. 서양 근대성의 뿌리인 계몽주의 전통에서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자연의 완전한 절대적 군주로 군림하였고 절대적 자연지배에 따른 물질의 풍요가 인간의 사회성을 무시한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의 팽배를 조장시켰다.

서구의 초자아적인 자유개인주의가 객체적 자유를 극대화 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관계성 안에서 생명의 상호작용을 멀리한다.

산업문명위기는 상호의존적 세계, 연관성에 대한 부정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다. 지구환경은 100만년 전에 출현한 인간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45억년 전의 비생물과 30억년 전의 생물등의 자연계등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전우주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1세기 생태문명은 개인중심의 이기적인 사고와 욕구로 인해 너와 나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즉 전우주의 품안에서 생성적, 역동적, 도덕적, 합리성이 토대가 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구조를 개편하는 것만이 공존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4. 생태환경 패러다임 중심의 교육 방향

21세기를 위한 교육방향을 자본축적보다는 자연과 함께 하는 인류공동체를, 개인의 욕망보다는 사회의 정의를, 경제성장이나 부의 팽창보다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공존,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태패러다임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환경교육의 이념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 즉 21세기 인류문명사에 있어 새로운 생태문명의 지평을 열어가고 선도하는 환경교육이 되어야 한다. 서구인들이 선진문명국이라는 미명하에 400년에 걸쳐 지구환경의 황폐화로 몰고 오게 한 경제원리, 종교적 신앙, 사회문화, 정치이념, 개인의 윤리와 소망 등에 대한 교육체계는 이제 새로운 생태 패러다임 중심의 환경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새로운 환경교육

의 방향은 우선 지속가능한 새로운 친환경경제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인간과 자연의 평등사상을 고양하는 생태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생물질의 개념, 생태적 계약론 등이 시사하는바와 같이 성장사회에서 균형사회로 이전될 경우에 수반되는 정치이론과 교육이념도 생태패러다임 우선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sup>12)</sup>

산업문명과 생태문명의 이념적 사회적 패러다임은 다음(표 1)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

12) Francis Raymond Line & Helen E.Line, Man With a song (FRANCISCAN HERALD PRESS, 1977, CHICAGO). p.110

<표 1> 산업문명과 생태문명의 이념적, 사회적 패러다임의 비교

구 분	산 업 문 명	생 태 문 명
	<b>이념적 패러다임</b>	<b>이념적 패러다임</b>
철 학	서양철학(이성,합리성 기계론(환원론)/이원적/직선적/원자적	동양철학(감성,직관) 유기체적/일원적/전일적/역동적 (생성적)
윤 리	개인의 자유중시, 편리주의, 경쟁	공생, 공동선, 자립, 지속성 (연속성)
세 계 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월적 지위 (인간중심주의)	인간과 자연의 조화적 지위 (생태중심주의)
	<b>사회적 패러다임</b>	<b>사회적 패러다임</b>
목 표	산업화와 경제성장(성장) 보존	환경과 문화복지(성장=보존
목표수단	자연의 정복에 의한 대규모 개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ESSD)
평가기준	경제적 효율성(quantity of life)	사회적 효율성(quality of life)
사회가치관	크고, 높고, 많은 것	Small is Beautiful
행정체계	중앙중심주의(Centralization)	지방중심주의(Decentralization)
정치체계	자유주의(산업입국)	Ecotopia(환경입국)
경제체계	자유주의 경제구조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과학기술	기술낙관주의(Hard Technology)	Gaia 주의 (Soft Technology)
생산, 소비	생산·소비 확장주의 (자원의 무한성)	성장한계주의 (Green Consumerism)
위기관리수단	Reform Environmentalism	Ecocentrism
접근방법	Incrementalism	Comprehensiveness
기 간	Short Term	Long Term
국제질서	자국 중심	범지구 중심

## V. 생명 우선의 친환경교육

### 1. 생태중심의 인간과 자연의 평등사상 교육

인간과 자연의 평등사상교육은 한마디로 생태중심 교육을 의미한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이념적, 사회적 패러다임은 지금까지 관성의 힘에 끌려 계속되고 있는 이성적 중심에 입각한 과학만능주의/기계론적 세계관/인간중심주의의 무한성장체제를 극복하고 이성과 감성이 공존할 수 있는 유기체적/전일적/일원적/역등적인 현상인 '生命'을 지향하는 인간과 자연의 평등사상의 생태중심적 환경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생태중심적 사상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동·서양의 여러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우주생명 공동체 論'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이야말로 현 인간중심의 무한 욕구에 의한 무한성장 주의를 잠재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이 교육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의 질서안에서 우주의 싱싱한 기운을 호흡하면서 우직 생명을 회복하자는 신문명생명교육이다.

우주적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사상), 문화, 인간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마음이 변화지 않고는 정치, 경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특히 근본적인 사상이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환경교육은 유기체적 사고로 빨리 전환하도록 재편하여야 한다.

이미 앞서 지적했듯이 인간과 자연의 평등사상을 그것도 환경문제조차 없던 암울한 시기에 주창한 선각자가 있다.

미국시사주간지 '타임'이 1992년 지나간 천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내다보면서 IBM과 미래학자 등이 중심이 되어 지나간 1천년동안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은 10결중 1위를 차지한 아시지의 성인 프란치스코 수도회 창설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인간과 자연의 평등사상 주창은 인간의 자연정복사상을 기초로한 중세 기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동양사상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일체사상을 주장한 사례는 많으나 프란치스코와 같이 일생을 '땅과 물, 흙과 식물 그리고 물짐승들은 모두 형제자매'라는 일관된 자연보호정신에 입각하여 실현한 인물은 드물다.

그런 뜻에서 역사학자 토인비, 생태학자 Lynn White 교수를 비롯한 오늘날의 전세계 환경학자, 동식물학자들은 이분을 한결같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인 혁명가로 칭송하며 인간과 자연 관계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크리스찬 비전으로 꼽고 있다.

어쨌든 인간과 자연의 평등사상 교육은 인간의 과도한 자연착취에 의한 지구자연자원의 황폐화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평등사상 교육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① 인간의 지연에 대한 우월을 부정하며, 인간과 비인간은 일체창조물이며 평등하다.
- ② 사물과 자연, 타인 및 타세대에 좀더 관심을 가진다.
- ③ 물질적 부의 극대화 보다 적정화를 꾀한다.
- ④ 성장의 한계, 자연자원의 유한성, 인구 폭발 등 환경보전을 중시한다.
- ⑤ 청빈, 절제, 절약, 검소의 생활양식을 취한다.
- ⑥ 자연의 입장에서 인간의 행동을 재조명해 본다.

## 2. 정치이념을 체계화하는 생태정치 교육

정치적 생태학(Political ecology)의 원리는 정치사회와 자연생태계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재형성하는 과정에 기인한다.

현재의 정치, 사회 발전의 패러다임인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는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이념으로 부적절하다. 정치생태학의 거시적 목표는 환경의 '지구적' 파괴과정을 제도와 정책의 개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저지하고 관리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입법, 사법 어디에도 생태정치 교육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수조원을 낭비하는 시화호, 동강, 새만금 문제가 수년간이나 국력분열과 갈등을 빚는데도 아직도 시원한 대안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생태학의 교육 목표와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 ① 인간지식과 자연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킴으로서 물질과 재화의 리사이클링과 재생산이 가능한 사회체제를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 ② 인간의 생태학적 자각을 통하여 물질적 풍요보다 자원절약의 사회구조로 재편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 ③ 사회와 자연과의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한다.
- ④ 환경보호에 관한 도덕성과 윤리를 중시한다.

- ⑤ ‘녹색유토피아’(Green Utopia) ‘Ecotopia’를 이루기 위하여 정치적 이념과 제도를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정치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정치 행정의 이념은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평등의 개념은 인류의 평등은 물론 인간과 자연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체제로 재편되어야 한다.

### 3.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교육

개발이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경제(sustainable eco-economy)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개념이다. 한마디로 생태계의 부양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탱가능한 성장으로 급 전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경제, 에너지, 농업, 산업의 모든 정책이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계획된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환경’은 언제나 경제의 뒷전이고 ‘환경이 경제의 일부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의 시각도 없지 않다.

환경악화가 산업문명 몰락과 경제쇠퇴를 초래한 역사가 전하는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경제학과 생태학의 조화와 통합의 대안제시가 요망된다.

생태계를 공유하고 통합된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생태경제 교육 프로그램은 환태평양시대의 동북아경제국가 중심의 발판으로도 절대 필요한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경제는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순환이 아닌 일방적, 직선적 흐름으로는 존속하기 어렵다.

Kenneth Boulding은 이제 균형사회나 비성장 사회는 불가피하며 문제는 생산성장의 문제에서 분배형평의 문제라고 역설한다.

W. Ophuls에 의하면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상상태의 사회(Steady State Society)에서는 엘리트 계층의 계도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또는 Ophuls는 ① 성장지향적 경쟁적 시장메카니즘은 포기되어야 한다. ② 자유방임적 의사 결정방안은 지양되어야 한다. ③ 전향적 경제인 개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④ 老壯子の 道, 無爲自然思想의 생태 경제개념이 바람직하다고 주창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파괴적인 경제활동으로 경제와 함께 공멸되었던 고대 문명의 비극을 답습할 문턱에 서 있다.

다가올 21세기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으로 신생태기술주의에 입각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유기체적 생태문명 창출하는 역사적 주체자로 남는 새로운 생태경제교육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생태문화를 체계화하는 생태문화 교육

우리가 어떤 정치,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데 따라 환경의 관리, 통제, 기획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Lynton Caldwell에 의하면 인간이 환경에 대응하는 태도를 다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① 자유방임태도
- ② 기술에의 확신
- ③ 반기술주의
- ④ 선별문화 등이다.

Caldwell은 유토피아적 반기술, 반관료적 접근, 자연복귀는 생태적 원리에 기초한 계획경제, 통합관리 등 목표와 관리를 명백히 하고 반기술주의 주장 내지는 선별문화의 형성이 기본적 과제라고 한다.

이러한 생태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환경문제 해결, 둘째, 전통관료 조직을 생태문화실현을 위해 전면 재편성하고, 셋째, 생태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현 성장일변로의 정치행태, 기업의 윤리, 사회의 목표에서 균형성장의 선별문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 5. 생태 순환재이용 등 대체신기술 교육

20세기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합리성이 인간에게 참으로 많은 물질적 풍요와 지적 발전을 가져다 준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과학을 신격화하고 인간의 이성을 도구화하는데 전념한다면 결국 21세기에도 인간은 죽음의 세계를 위한 온갖 노예에 불과한 비참한 인류 역사를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 미래의 생태기술의 방향은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이용되는 순기능 못지 않게 불확실성으로 역기능이 우려되고 '위험'으로 상존하는 유전자 공학, 생명공학, 핵 공학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확실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하이테크의 신기술 주입이 시급하다.

결국 환경문제는 자연자원의 남용이나 과학기술의 비인간화에서 오는 부산물이다. 우선 이러한 부산물을 제거하는 고도의 신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염의 위험이 없거나 최대한의 감소를 위해 무공해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순환재이용기술, 대체기술 등의 발전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생태적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생태기술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망된다.

## 6. 국제협력 생태연대교육

환경교육의 동향을 보면 UNESCO가 자연보호에 관심을 가져오던 중 1972년 UN인간환경회의에서 건의된 권고 '96호에 호응하며 UNEP 및 IUCN기관들과 협력하여 환경교육의 세계화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75년 벨그라도헌장선포, '77년 소련 트빌리시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회수, 그리고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만들어낸 Agenda21의 36장 교육, 일반대중의 인식과 훈련증진과 2002년의 환경교육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실질적 계획안을 기획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장치와 재정보호 등이 논의됨으로서 전지구화된 오존층, 지구온난화, 산림의 황폐화, 이상기후변화 문제 등을 제어하는 범지구적인 전문가와 시민을 양성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히 요망된다.

또한 국제기구와 각 국가간 연대는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협력방안이 될 수 있다.

## VI. 맺는말

이제 현인류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는 책무는 어느 국가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불문하고 범세계적, 범지구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성장사회의 정치, 경제패러다임은 균형사회를 전환하는 생태패러다임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적인 전환이 요망된다.

우리는 전지구생태계의 환경용량의 한계를 깊이 고려하여 생태학적 차원에서 정치 철학의 형성, 정치이념의 모색, 새로운 가치창출, 윤리의 창조, 사회문화 체제의 변화, 지구생존전략 등의 새로운 생태 질서 위주의 재편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생태적 위기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이론에 근거한 세계화의 차원에서 환경교육의 체계화와 정부조직 등 재편작업이 시급하다. 이러한 신생태환경 교육은 후기 산업사회 즉, 생태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보다 가치있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공존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환경적으로의 건전한 발전은 더 많은 소유보다 적절히 소유하는 청빈, 절용의 발전 모델이다.

그러므로 생태중심의 환경교육은 21세기 이후를 내다보는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며 분별력있는 사고와 행동의 생태덕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번웅, 오영석(1999), 「환경행정」, 대영문화사  
박길용(2002), 「환경문제와제사상」, 다산출판사  
김재영외(1996), 「환경정치와정책」, 삼우사  
사득환(1997), 「한국환경정책의 이해」, 비봉출판사  
조길영옴김(1996), 「환경혁명」, 동쪽나라  
김귀곤옴김(1980), 「환경교육의 세계적동향」, 배영사  
오홍석외(1992), 「환경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  
김명자옴김(1992), 「엔트리피」, 동아출판사

- 김용욱(1999), 「노자와 21세기(上,下)」, 통나무
- 안기희(1998), 「환경학개론」, 학문사
- " (1988), 「환경과학론」, 대웅
- " (1993), 「환경학」, 한국이공학사
- " (1999), 「새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 환경교육」  
        「환경교육」, 한국환경교육학회
- 곤벤틀알 성프란치스코 수도회(1986), 보나베두라에 의한 아시지의성 프란치스코 의  
        대전기」, 분도출판사
- 라자로 이리아드메(1987), 「성프란치스코 여성」, 프란치스코 한국관구 옮김, 계성출판  
        사
- 미레이(버도), 「프란치스코의 여행과 꿈」 홍원숙 역(1981), 성바오로 출판사
- 에릭도일(1974), 「태양의 노래」, 정현숙 옮김
- 최정호 역(1977), 「아시지의 성프란치스코의 발자취」, 분도출판사
- 프란치스코 한국관구(1990), 「프란치스코 선교영성」
- 호세메리노(1990), 「프란치스코 사상에 비추어 본 인간을 위한 미래건설」  
        김현태 역, 분도출판사
- Anderson, Kym and Richard Blackhurst(1992), The Greeing of World Trade Issues,  
        New York : Harvester Wheatsheaf.
- Anderson, Thomas(1995) Trading With the The Environment : Ecology,  
        Economics, Institution and Policy, London : Earthscan.
- Caldwell, Lynton(1982), Science and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f :  
        Redirecting Policy Ihrough Procedural Reform. University, Ala :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Catron, Bayard(1996). "Sustain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 An Expanded  
        Stewardship for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Vol,18, No1
- ANCED,(1992), The Global Partnership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 Guide  
        to Agenda 21, New Youk : UN Publication